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아동의 증상,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간의 관계

## Relationship Among Children's ADHD Symptoms, Parenting Stress and Behavior Regarding Nurturing

김세연

우석대학교 작업치료학과

Se-Yun Kim(ksy8024@woosuk.ac.kr)

### 요약

본 연구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의 증상,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ADHD의 증상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소아정신과 3곳에서 ADHD로 진단받은 만 4~12세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행동, ADHD 증상 척도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ADHD 증상은 각각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축약형 검사, 수정한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MBRI), 부모용 한국형 ADHD Rating Scale(K-ARS)를 사용하였다. 총 59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빈도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ADHD 증상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다중회귀분석 결과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F=12.88, p<.01$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 중 애정적 태도와 부적상관을, 거부적 태도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F=10.23, p<.001$ ). ADHD 증상은 양육행동 중 거부적 태도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F=5.64, p<.01$ ). ADHD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위해서는 아동의 ADHD 증상에 대한 치료적 접근과 함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중심어 : | 양육스트레스 | 양육행동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children's ADHD symptoms, parenting stress and behavior regarding nurturing. The data were provided by 59 mothers of children with ADHD who is aged between 4 and 12. Mothers of children with ADHD were recruited through 3 departments of child psychiatry. The 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the Korean version of revised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MBRI) and ADHD Rating Scale(K-ARS) was used to assess parenting stress, behavior regarding nurturing and ADHD symptoms respectively.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parental distress and warmth, rejection behavior. Parental distress is significant influence on behavior regarding nurturing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ADHD symptom and rejection behavior. ADHD symptom is significant influence on behavior regarding nurturing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ehavior regarding nurturing is related to ADHD symptom, parental distress. Therefore, it is needed for not only treatment related to ADHD symptom but also interventions for behavior regarding nurturing for mothers of children with ADHD

■ keyword : | Behavior regarding nurturing |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 Parenting Stress |

\* "이 논문은 우석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단의 지원을 받은 논문임"

## I. 서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및 충동성을 주증상으로 하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1]는 소아청소년 정신과를 내원한 환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이다[2]. 우리나라의 ADHD 유병율은 전체 아동의 6.6~13.2%로 나타나[3] 아동기 정신건강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ADHD 아동 중 25%는 불안장애, 30~40%정도는 우울증, 40~70%는 품행장애나 적대적 반항장애와 같은 행동장애를 동반하며[4][5], 10~92%는 학습부진과 학습장애를 동반한다[6]. 위와 같은 증후는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까지 계속될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7]. 예를 들어, 불안문제가 있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더 높은 중퇴율과 미숙한 문제해결 기술,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보인다[8][9].

아동과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어머니들이 일상 생활에서 나타나는 양육행동은 자녀의 다양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민주적이고, 애정적인 경우 아동은 주의 집중력, 충동 조절, 자기조절 능력, 정서 조절, 문제해결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1-14]. 위와 같이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을 촉진시킴에도 불구하고, ADHD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은 ADHD와 관련된 문제행동으로 인해 덜 효과적이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5]. ADHD로 진단받은 아동은 발달수준에 맞지 않는 부적응행동을 보이고, 환경에 대해 파괴적인 행동을 보인다[16]. 또한 부모의 요구에 덜 순응하며, 부모에게 더 도전적이고 적대적이고 부정적이며, 정상 발달을 보이는 아동보다 더 많은 도움과 주의를 요구한다[17]. 따라서 ADHD 자녀를 둔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이고 통제하는 양육행동을 보이며[18][19], 더 명령적이고 보다 많은 지시를 내리며, 더 질책하고 아동과의 상호작용에도 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20].

부모에게는 자녀의 양육 자체가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이 될 수 있고, 특히 과잉행동이나 품행문제[21], 발달 지연[22] 등의 정신과적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의 어머니들은 정상아동의 어머니들보다 더 스트레스가 많고, 반대로 양육에 대한 보상이나 긍정적인 피드백은 오히려 적게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ADHD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키우기가 어렵고 부모에게 더 많은 양육스트레스와 좌절감, 우울감등을 경험하게 한다고 여러 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23-25]. ADHD 아동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심리적 문제는 본인의 건강이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상 생활에서 언어나 행동으로 표출됨에 따라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26], 부모와 아동간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8][27].

최근 Rogers 등 [28]의 연구에 따르면 ADHD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예측인자로 ADHD 아동의 증상뿐만 아니라 양육스트레스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의 연구는 ADHD의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거나[26, 29] 또는 ADHD 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30] 등 단편적인 관계를 밝히는데 초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양육행동은 사회문화적 배경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31-33]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제한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 ADHD 아동과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ADHD 증상,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는 연구들을 수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결과를 축적해 근거기반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ADHD 자녀를 둔 어머니를 위한 지원 및 중재방안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ADHD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ADHD 증상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ADHD 증상과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I, K, S시에 소재한 소아정신과 3곳에서 ADHD로 진단받은 만 4세~13세 아동 59명의 보호자였다. 연구자는 소아정신과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에게 연구 목적 및 질문지 작성방법을 설명하고, 질문지는 작업치료사를 통하여 보호자에게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연구자는 2012년 4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9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79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표기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끝까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20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9부의 질문지를 분석하였다. 모든 설문지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 시행되었다.

### 2. 연구도구

#### 2.1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부모 양육스트레스 축약형 검사(Korean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K-PSI-SF)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도구는 Abiden[34]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검사하기 위해 개발한 것을 이경숙, 정경미, 박진아와 김혜진[35]이 표준화한 것이다. 본 도구는 부모보고 형식으로 만 1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의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를 부모의 고통,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 그리고 까다로운 아동의 3개 하위 척도로 측정한다. 각 하위척도는 각각 12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경숙, 정경미, 박진아와 김혜진[35]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5로 나타났다.

#### 2.2 어머니의 양육행동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는 Schaefer[36]의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MBRI)를 이원영[37]이 번역하여 만든 도구를 황혜순[38]이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검사 도구는 4개의 하위요인(애정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으로, 각각 12문항씩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하위문항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5점), 그런 편이다(4점), 그저 그렇다(3점), 아닌 편이다(2점), 아주 아니다(1점)”로 구성된다. 점수는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거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총 점수를 계산할 때는 거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를 역채점한 것으로 계산되어 총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애정적 태도는 .82, 거부적 태도는 .73, 자율적 태도는 .50, 통제적 태도는 .56로 나타났다.

#### 2.3 ADHD 증상 척도

임상적 진단을 받은 ADHD 아동들을 하위 유형별로 구분하기 위해 소유경 등[39], 장수진, 서동수와 변희정[40]에 의해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진 부모용 한국형 ADHD Rating Scale(K-ARS)을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1991년 Dupaul에 의해 학령기 아동의 ADHD 증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DSM-III-R을 기준으로 단일차원의 14개 문항으로 개발되었다. 이후 DSM-IV로의 개정과 함께 부주의성을 시사하는 9개 문항과 과잉행동-충동성을 시사하는 9개 문항을 합하여 총 18개 문항, 2요인으로 구성된 척도로 재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ADHD 증상에 대해 지난 3개월 동안 아동의 전반적인 행동에 대해 어머니가 평가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문제행동의 빈도에 따라 “전혀 혹은 그렇지 않다(0점), 때때로 그렇다(1점), 자주 그렇다(2점), 매우 자주 그렇다(3점)”로 평정되는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2점 이상의 점수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비하여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홀수문항의 총점은 주의력 결핍 증상을 측정하며, 짝수 문항의 총점은 과잉행동/충동성 증상을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총 점수

가 19점 이상이면 ADHD가 의심되며 K-ARS의 Cronbach's  $\alpha$ 는 .77에서 .89로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84로 높은 편이었다.

###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해 통계처리 하였다.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아동의 ADHD 증상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였다. ADHD 증상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두 번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변수는 ADHD 증상으로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충동 증상이다. 두 번째 변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로 부모의 고통,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이다. 두 경우 종속변수는 양육행동의 총 점수이다.

## III.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만 4~12세까지 ADHD로 진단받은 59명의 아동의 어머니이다. 아동의 평균연령은  $94.85 \pm 11.23$ 개월이었다. 부모용 ADHD 평가척도를 기준으로 과잉행동-충동 증상을 보이는 아동은 35명(59.33%)이고, 주의력 결핍증상을 보이는 아동은 24명(40.68%)으로 나타나 과잉행동-충동의 비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은 30대가 71.2%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학력은 대학졸이 가장 많았으며, 수입은 300만원대가 28.8%로 가장 많았으며,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형태가 91.5%로 가장 많았다. 아동과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 2. ADHD 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ADHD 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하였다. ADHD 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보면 까다로운 아동

상호작용( $M=32.58$ ) 순서대로 점수가 높아 까다로운 기질로 인해 부모가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애정적 태도( $M=40.22$ )였으며, 그 뒤로 자율적 태도( $M=37.95$ ), 거부적 태도( $M=33.88$ ), 통제적 태도( $M=31.44$ )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표 2].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9

대상	구분	특성	대상자(명)	백분율(%)
아동	성별	남	48	81.4
		여	11	18.6
	연령	4세	6	10.2
		5세	4	6.8
		6세	8	13.6
		7세	9	15.3
		8세	8	13.6
		9세	6	10.2
		10세	10	16.9
		11세	3	5.1
		12세	5	8.5
		평균연령(개월) (M±SD)	94.85±11.23	
	증상	주의력 결핍	24	40.68
과잉행동-충동		35	59.33	
부모	연령	30대	42	71.2
		40대	17	28.8
	학력	고졸	22	37.3
		대학졸	36	61.0
	수입	대학원 이상	1	1.7
		100-199만원	10	16.9
		200-299만원	10	16.9
		300-399만원	17	28.8
		400-499만원	13	22.0
	가족 형태	500만원 이상	9	15.3
부부와 자녀		54	91.5	
부부와 자녀, 시가 동거		4	6.8	
	부부와 자녀, 처가 동거	1	1.7	

표 2. ADHD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구분	하위영역	점수(M±SD)
양육 스트레스	부모의 고통	34.81±7.25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	32.58±6.37
	까다로운 아동	36.46±6.51
	스트레스 총점	171.24±28.99
양육 행동	애정적 태도	40.22±5.97
	거부적 태도	33.88±4.89
	자율적 태도	37.95±6.36
	통제적 태도	31.44±4.04

### 3. ADHD 증상,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 간의 관계

ADHD 증상,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주의력 결핍증상이 높을수록 부모의 고통( $r=.45, p<.01$ ),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 $r=.47, p<.01$ ), 까다로운 아동( $r=.50, p<.01$ ) 등 양육스트레스가 높았으며, 과잉행동 증상이 높을수록 부모의 고통( $r=.43, p<.01$ ),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 $r=.29, p<.05$ ), 까다로운 아동( $r=.52, p<.01$ ) 등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주의력 결핍증상이 높을수록 애정적 태도( $r=-.27, p<.05$ )는 낮고 거부적 태도( $r=.39, p<.01$ )는 높았으며, 과잉행동-충동의 증상이 높을수록 애정적 태도( $r=-.23, p<.05$ )는 낮고 거부적 태도( $r=.36, p<.01$ )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스트레스 중 부모의 고통이 높을수록 애정적 태도( $r=-.51, p<.01$ )와 자율적 태도( $r=-.34, p<.01$ )는 낮고, 거부적 태도( $r=.47, p<.01$ )는 높았다. 양육스트레스 중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애정적 태도( $r=-.43, p<.01$ )는 낮고, 거부적 태도( $r=.35, p<.01$ )는 높았으며, 까다로운 아동일수록 애정적 태도( $r=-.40, p<.01$ )와 자율적 태도( $r=-.41, p<.01$ )는 낮았으며, 거부적 태도( $r=.44, p<.01$ )는 높게 나타났다[표 3].

표 3. ADHD 증상,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간의 관계

구분	1	2	3	4	5	6	7	8	9
ADHD 증상	1								
양육스트레스	.67**	1							
양육행동	.45**	.43**	1						
	.47**	.29*	.60**	1					
	.50**	.52**	.59**	.56**	1				
	-.27*	-.23*	-.51**	-.43**	-.40**	1			
	.39**	.36**	.47**	.35**	.44**	.60**	1		
	-.21*	-.31**	-.34**	-.05	-.41**	.45**	.29*	1	
	.09	.17	.02	.06	.07	.16	.08	.24	1

1. 주의력 결핍; 2. 과잉행동-충동; 3. 부모의 고통; 4.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 5. 까다로운 아동; 6. 애정적 태도; 7. 거부적 태도; 8. 자율적 태도; 9. 통제적 태도  
\* $p<.05$ , \*\* $p<.01$

### 4. ADHD 증상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ADHD 증상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

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 검증결과 D-W 계수가 1.56으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공차한계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충동 모두 .75로 1에 가깝고, 분산팽창계수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충동 모두 1.82로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각 변인간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ADHD 유형은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F=12.88, p<.01$ ), ADHD 유형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친 영향력은 32%정도로 나타났다[표 4].

표 4. ADHD 증상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eta$	$R^2$	F
양육스트레스	주의력 결핍	.44	.32	12.88**
	과잉행동-충동	.16		

\*\* $p<.01$

### 5. ADHD 증상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 분석결과 ADHD 증상은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F=5.64, p<.01$ ), ADHD 증상이 양육행동에 미친 영향력은 17% 정도로 나타났다[표 5]. Durbin-Watson 검증결과 D-W 계수는 1.69로 잔차항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공차한계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충동 모두 .72로 1에 가깝고, 분산팽창계수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충동 모두 1.82로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각 변인간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ADHD 증상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eta$	$R^2$	F
양육행동	주의력 결핍	-.25	.17	5.64**
	과잉행동-충동	-.19		

\*\* $p<.01$

### 6.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ADHD 아동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F=10.23, p<.001$ ), 영향력은 36% 정도로 나타났다[표 6]. 공차한계는 .54~.89로 1에 가깝고, 분산팽창계수는 1.73~1.83으로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각 변인간 공선성의 문제

는 없었다. Durbin-Watson 검증결과 D-W 계수가 1.75로 2에 근접해 잔차항 간의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eta$	$R^2$	F
양육 행동	부모의 고통	-.42	.36	10.23***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	.06		
	까다로운 아동	-.28		

\*\*\*p<.001

#### IV. 고찰

본 연구는 ADHD 증상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ADHD 증상과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ADHD 아동의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충동 증상과 양육스트레스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ADHD 증상은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12.88, p<.01). 즉, ADHD 아동의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충동 증상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본 연구결과는 선행 연구[41-44]와 같은 결과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최근 포르투갈에서 ADHD 아동을 대상으로 ADHD의 내면화 및 외현화 증상과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ADHD 증상은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ADHD 증상은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24]. 또한 Graziano, McNamara, Geffken, Reid[23]은 과잉행동-충동수준은 양육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으나 주의력결핍은 양육스트레스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더 많은 ADHD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충동 수준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를 찾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행동 중 애정적 태도는 낮아지고 거부적 태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10.23, p<.001). 이러한 연구결과는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과 유사하다[18][41][45]. Morgan등 [45]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비기능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cLaughlin와 Harrison[18]은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ADHD 아동의 어머니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연희 등[41]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로 나타났으며, 특히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온정적인 양육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Rogers 등[28]과 최윤영 등[30]은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더 통제적인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와 통제적 태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많은 ADHD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의 약물치료 및 기타 치료 등의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후 추후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DHD 아동의 주의력 결핍 증상이 높을수록 양육행동 중 애정적 태도(r=-.27, p<.05)는 낮고 거부적 태도(=.39, p<.01)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잉행동-충동 증상이 높을수록 애정적태도(r=-.23, p<.05)낮고, 거부적 태도(=.36, p<.01)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ADHD 증상은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F=5.64, p<.01). 주의력 결핍증상이 심할수록 부모의 애정적 태도가 낮아지는 결과는 ADHD 아동의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이미아[26], 김태남[29]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며, 과잉행동-충동 증상이 심할수록 애정적 태도는 낮아지고 거부적 태도는 높아지는 본 연구결과는 이미아[26]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신연희 등[41]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아동의 ADHD 증상이라고 하였으며, 특히 ADHD 증상이 심할수록 애정적 양육태도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McLaughlin과 Harrison[18]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Child Behavior Checklist (CBCL)의 전체 총점을 통해 평가된 아동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DHD의 증상은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ADHD 증상과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ADHD 증상과 양육스트레스는 ADHD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ADHD 아동의 어머니들이 보다 긍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증상에 대한 치료적 접근과 함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ADHD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양육훈련 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행동의 개선과 양육스트레스 감소뿐만 아니라 자녀의 문제행동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 [26][46]와 마찬가지로 ADHD를 가진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한 양육행동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I, K, S시에 위치한 소아정신과 3곳의 아동을 임의 표집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국내 모든 아동에게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ADHD 아동의 성별과 연령이 고루 배치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을 균등하게 배치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과 관련된 변인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4가지 요인으로 제한하였으나, 그 외에 외향적, 의존적, 긍정적 태도를 포함하여 더 광범위하게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정의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ADHD 아동의 어머니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아동

의 내적 및 환경적 변인을 추가하여 구조적 관계모형을 검증함으로써, 내·외적 요인들이 어떤 구조적 관계에 있는가를 알아보는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V. 결론

본 연구는 ADHD 아동의 증상,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간에 관계를 알아보고, ADHD의 증상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ADHD 증상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다중회귀분석 결과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 중 애정적 태도와 부적상관을, 거부적 태도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ADHD 증상은 양육행동 중 거부적 태도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ADHD 자녀를 둔 부모를 지원하고 중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ADHD 증상에 대한 치료적 접근과 함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 문헌

- [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 [2] J. A. Staller, "Diagnostic profiles in outpatient child psychiatry," *Am J Orthopsychiatry*, Vol.76, No.1, pp.98-102, 2006.
- [3] S. J. Yang, S. S. Jung, and S. D. Hong,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School-based mental health services in Seoul," *J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45, No.1, pp.69-76, 2006.

- [4] E. A. Harvey, S. D. Youngwirth, D. A. Thakar, and P. A. Errazuriz, "Predicting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nd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from preschool diagnostic assessments," *J Consult Clin Psychol*, Vol.77, No.2, pp.349-354, 2009.
- [5] A. Y. Mikami, S. P. Hinshaw, K. A. Patterson, and J. C. Lee, "Eating pathology among adolescent girls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J Abnorm Psychol*, Vol.117, No.1, pp.225-235, 2008.
- [6] B. F. Pennington, L. M. McGrath, J. Rosenberg, H. Barnard, S. D. Smith, E. G. Willcutt, A. Friend, J. C. DeFries, and R. K. Olson, "Gene X environment interactions in reading disability and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Dev Psychol*, Vol.45, No.1, pp.77-89, 2009.
- [7] M. Semrud-Clikeman, S. Pliszka, and M. Liotti, "Executive functioning in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combined type with and without a stimulant medication history," *Neuropsychology*, Vol.22, No.3, pp.329-340, 2008.
- [8] M. R. Dadds, and P. M. Barrett, "Practitioner review: Psychological management of anxiety disorders in childhood", *J Child Psychol Psychiatry*, Vol.42, No.8, pp.999-1011, 2001.
- [9] R. M. Rapee, "The development and modification of temperamental risk for anxiety disorders: Prevention of a lifetime of anxiety?," *Biol Psychiatry*, Vol.52, No.10, pp.947-957, 2002.
- [10] 정옥분, *아동발달의 이해*, 학지사, 2004.
- [11] 박주희,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 양육목표, 양육행동, 또래관계 관리 전략*,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 [12] 최정미,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제23권, 제3호, pp.34-38, 2002.
- [13] D. Kaufmann, E. Gesten, R. C. S. Lucia, O. Salcedo, G. Rendina-Gobioff, and R. Gad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yle and children's adjustment: the parents' perspective," *J Child Fam Stud*, Vol.9, No.2, pp.231-245, 2000.
- [14] M. C. Paulussen-Hoogbeem, G. J. J. M. Stams, J. M. A. Jermanns, T. T. D. Peetsma, and G. L. H. vanden Wittenboer, Parenting style as a mediator between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and problematic behavior in early childhood, *J Genet Psychol*, Vol.169, No.3, pp.209-226, 2008.
- [15] R. A. Barkely, A. Anastopoulos, D. C. Guevremont, and K. E. Fletcher, "Adolescents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mother-adolescent interactions, family beliefs and conflicts, and maternal psychopathology," *J Abnorm Child Psychol*, Vol.20, pp.263-288, 1992.
- [16] J. J. Haugaard, *Child psychopathology*, McGraw-Hill, 2008.
- [17] R. A. Barkley, The social behavior of hyperactive children: developmental changes, drug effects and situational variation. In: McMahon R, Peters R (eds) *Childhood disorders: behavioural-developmental approaches*, Bruner/Mazel, pp.218-243, 1985.
- [18] D. P. McLaughlin, and C. A. Harrison, "Parenting practices of mothers of children with ADHD: the role of maternal and child factors," *Child Adolesc Ment Health*, Vol.11, No.2, pp.82-88, 2006.
- [19] V. Modesto-Lowe, J. S. Danforth, and D. Brooks, "ADHD: Does parenting style matter?," *Clin Pediatr*, Vol.47, No.9, pp.865-872, 2008.
- [20] L. Woodward, E. Taylor, and L. Dowdney, "The parenting and family functioning of children with hyperactivity," *J Child Psychol Psychiatry*, Vol.39, No.2, pp.161-169, 1998.



- [21] C. L. Podolski and J. T. Nigg, "Parent stress and coping in relation to child ADHD severity and associated child disruptive behavior problems," *J Clin Child Psychol*, Vol.30, No.4, pp.503-513, 2001.
- [22] K. L. Kogan, Interaction systems between preschool handicapped or developmentally delayed children and their parents. In T.M. Field, S. Goldberg, D. Stern, & A. M. Sostek (Eds.), *High-risk infants and children: Adult and peer interactions*, Academic Press, 1980.
- [23] P. A. Graziano, J. P. McNamara, G. R. Geffken, and A. Reid, "Severity of Children's ADHD symptoms and parenting stress: A multiple mediation model of self-regulation," *J Abnorm Child Psychol*, Vol.39, No.7, pp.1073-1083, 2011.
- [24] M. J. Pimentel, S. Vieira-Santos, V. Santos, and M. C. Vale, "Mothers of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relationship among parenting stress, parental practices and child behaviour," *Atten Defic Hyperact Disord*, Vol.3, No.1, pp.61-68, 2011.
- [25] 김세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아동의 불안수준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1호, pp.221-230, 2011.
- [26] 이미아, "ADHD를 가진 아동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어머니 특성 및 자녀 특성과의 관계", *특수아동교육연구*, 제11권 제2호, pp.95-111, 2009.
- [27] E. G. Spratt, C. F. Saylor, and M. M. Macias, "Assessing parenting stress in multiple samples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CSN)," *Fam, Sys, & Health*, Vol.25, No.4, pp.435-449, 2007.
- [28] M. A. Rogers, J. Wiener, I. Marton, and R. Tannock, "Supportive and controlling parental involvement as predictors of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relations to children's ADHD symptoms and parenting stress," *School Ment Health*, Vol.1, No.2, pp.89-102, 2009.
- [29] 김태남, *어머니의 양육행동특성과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와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30] 최운영, 김지혜, 조선미, 홍성도, 오은영,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 어머니의 우울감,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관련 태도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제13권, 제1호, pp.153-162, 2002.
- [31] R. K. Chao, "Extending research on the consequences of parenting style for chinese americans and european americans," *Child Dev*, Vol.72, No.6, pp.1832-1843, 2001.
- [32] S. Maiter and U. George, "Understanding context and culture in the parenting approaches of immigrant south asian mothers," *Affilia*, Vol.18, No.4, pp.411-428, 2003.
- [33] M. A. Suizzo and M. H. Bornstein, "French and European American child-mother play: Culture and gender considerations," *Int J Behav Dev*, Vol.30, No.6, pp.498-508, 2006.
- [34] R. R. Abidin, *Parenting Stress Index(PSI) manual(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 Inc., 1995.
- [35] 이경숙, 정경미, 박진아, 김혜진,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축약형(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K-PSI-SF)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여성*, 제13권, 제3호, pp.363-377, 2008.
- [36] E. S. Schaefer,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 Abnorm Soc Psychol*, Vol.59, No.2, pp.226-235, 1959.
- [37] 이원영, *어머니의子女教育觀 및 養育態度와 幼兒發達과의 關聯性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3.
- [38] 황혜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및 자기 유능감 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 [39] 소유경, 노주선, 김영신, 고신규, 고윤주, “한국어 판 부모, 교사 ADHD 평가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41권, 제2호, pp.283-289, 2002.
- [40] 장수진, 서동수, 변희정, “한국어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평가척도의 부모용 기준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제18권, 제1호, pp.38-48, 2007.
- [41] 신연희, 정현희, 최성열.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증상,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및 자기 유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아동교육, 제19권, 제3호, pp.143-158, 2010.
- [42] 송운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 및 가족 특성이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 [43] 신희선, 김정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위험요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및 아동문제행동간의 관계분석”, 대한간호학회지, 제40권, 제3호, pp.453-461, 2010.
- [44] J. Theule, J. Wiener, M. A. Rogers, and I. Marton, “Predicting parenting stress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ADHD: Parent and Contextual Factors,” J Child Fam Stud, Vol.20, No.5, pp.640-647, 2011.
- [45] J. Morgan, D. Robinson, and J. Aldridge, “Parenting stress and externalizing child behavior,” Child and Fam Soc Work, Vol.7, pp.219-225, 2002.
- [46] G. J. Dupaul and G. Stoner, ADHD in the school: assessment and intervention strategies, Guilford Press, 2004.

저 자 소 개

김 세 연(Se-Yun Kim)

증신회원



- 2007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1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재활학과 작업치료학 전공 박사수료
- 2009년 3월 ~ 현재 : 우석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관심분야> : 학교작업치료, 아동작업치료, 노인작업치료